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장흥 고씨 학봉 고인후 종가의 씨간장

“우리 집은 구한말 때 망한 집이여. 그때부터는 일본 놈들 무서워서 한군데서 못 살았어. 신위만 모시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친척 집에 더부살이를 해야 했어. 남들 같으면 벌써 고향을 뒀을 것인데 종가라 그러지도 못했어. 일본 놈들이 다 불 질렀는데 장독 하나 살았어. 그 장독에 있던 씨간장이 말로는 400년 된 거래. 그거 하나 남았어.” 담양군 장평면에 있는 학봉 고인후 종가의 종손 고영준 씨의 말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장흥 고씨 집안의 고경명은 6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장남 고종후 차남 고인후 등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다. 고경명의 직문에 호남의 의병 6천여 명이 모인다. 이 전투에서 고경명과 차남 고인후가 전사한다. 이때 살아남은 장남 고종후도 이듬해 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해 전사한다. 이들의 업적을 기려 조선 왕실은 불천위(不遷位)를 내린다. 불천위는 4대로 끝 나야 하는 제사를 영원히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였다. 장흥 고씨 가문은 조선 500년 역사상 삼부자가 왕으로부터 불천위를 받은 유일한 집안이다.

그로부터 300년 후, 일본이 다시 조선

을 침략하자 고인후의 11대 종손 고광순은 1895년부터 총을 들고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을 ‘집안과 나라의 원수’라 부르며 10년 넘도록 항거하다 1907년 구레 연곡사 전투에서 전사했다.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의병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고광순의 생가를 불태웠다.

일제가 생가를 불태울 당시 외아들 고재환이 이를 막으려다 총검에 찔렸고 후유증으로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이때 대대로 내려오던 종가의 유품들이 모두 불타 버렸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간신히 신위(神位)만 챙겨 나왔다. 가족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신위를 모시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녔고, 제자(祭職)에서 해방을 맞았다. 자칫 종손의 대가 끊길 뻔했으나 고영준 씨가 20대 젊은 나이에 양자로 들어오면서 종가의 맥을 잇게 됐다.

집안의 기록은 고사하고 손가락 젓가락 하나 남은 게 없었던 종가. 음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들이 이루는 삶 속에서 잉태되고 존재한다. 일본 경찰은 그 삶의 흔적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때문에 학봉 고인후 종가가 가진 가장 찬란한 유산은 ‘나라를 지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실’ 자체다. 음식은 그 숭고한 역사의 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일제의 잔혹한 만행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세 가지가 있었다. 살아남은 가족과 그 가족이 끝내 지켜 낸 조상의 신위. 그리고 씨간장이 담긴 장독 하나. 신위는 학봉 종가의 충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남은 가족은 종가의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시킬 주체였다. 사라졌으면 사라지지 않은 것. 오로도 풍족과 신위를 지키며 불천위 제사를 이어 가고 있는 고영준 종손과 이재숙 종부의 존재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학봉 종가가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장독이 있었다. ‘말로로는 400년 이 된 거라고 고 씨가 겸손하게 말했다. 씨간장이 담긴 바로 그 장독이다. 세월이 흘러 이 간장의 가치를 알아보는 입맛 매섭고 눈 밝은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300년이 되었건 400년이 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입맛 매섭고 눈 밝은 이들은 그 간장 속에서 수백 년을 버텨 온 미생물의 존재와 그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모방할 수 없는 맛의 가치를 알았다. 너도나도 그 간장을 탐냈다. 종부는 말했지만 배포 크고 인심 좋은 종손은 거침없이 간장을 나눠 주었다.

씨간장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새로운 간장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되며 무한히 복제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라졌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 전통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와 요리연구가가 씨간장을 얻어 갔다. 그들이 만드는 음식의 핵심은 간장이다. 그 가운데 한 음식점은 최근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받았다.

덕분에 이 음식점에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이 많이 찾는다. 같은 장(醬) 문화권에 사는 이들 나라의 관광객들은 장맛의 근원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맛의 깊이는 짐작할 수 있는 모양이다.

나는 가끔 그 식당에서 ‘오이시이(맛있다)!’를 연발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만난다. 그들을 보며 ‘그 장맛의 일부는 당신네 조상들이 흔적조차 없애 버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집안의 전통’이라고 속으로만 말한다.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행히 버텨 준 장독이 그렇게 대견하고 감사할 수 없다. 장흥 고씨 가문의 우국충절이 잊히지 않듯, 그 간장 맛 또한 한국 음식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원한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이상편과 비문증



조형진 보리안과병원 원장

“예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다시 지라났어요” “눈에 백태가 생겼어요”

이것은 진료실에서 오가는 ‘이상편’과 관련한 이야기다. ‘군날개’라고도 불리는 이상편을 가끔 백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백내장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백내장 수술을 무언가 하얗게 덮인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도 많아 이상편을 백내장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존재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되어 시력 저하가 생기는 질환으로 아주 심해지기 전에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 이상편은 각막(검은자) 위에 섬유 혈관성 결막(흰자)이 과성장한 것으로 육안으로 바로 관찰이 된다. 흰자가 자라나와 검은자 위로 올라가 눈에 하얀막이 낀 듯이 보여 백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보통은 혈관 조직이 많아 눈이 항상 충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

이상편이 생기는 원인은 자외선 노출, 노화 과정, 먼지나 바람에 의한 이물질에 의 노출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명확

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바깥쪽 보다 안쪽(코쪽)에 많이 생긴다. 심하지 않은 경우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용상의 문제만 일으키지만 결막 조직이 많이 자라나 동공을 가리게 되면 심한 시력 저하가 생기고, 조직이 각막을 잡아당겨 심한 난시를 만들기도 한다.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상편의 혈관 확장에 의한 충혈에 대해 안약을 사용해 치료해 볼 수 있다.

“눈 속에 벌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이랑이가 보여요”

이것은 ‘비문증’과 관련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눈앞에 벌레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눈에 머리카락 같은 게 떠다니는데 시선을 옮기면 따라 다닌다고 하는 비문증(飛蚊症·날파리증)은 우리 눈 속 유리체 변성으로 나타난다. 유리체는 눈의 안쪽 공간을 채우는 젤리같은 조직이다. 98-99%의 물과 1-2%의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리체

가 투명해야 선명한 시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젤리같은 유리체가 점점 액화되고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의해 유리체 내에 혼탁이 생기면서 어지럼이, 날파리 같은 것이 보이는 비문증이 생기는 것이다. 유리체 변성은 일종의 노화 현상이지만 고도 근시의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

노화 현상의 하나인 비문증은 특별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치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보이는 부유물을 계속 찾게 되면 더욱 신경이 쓰이고 심해지므로 어느 정도 무시하고 신경을 덜 쓸 것을 권유 드린다.

하지만 비문증의 원인이 단순 노화가 아닌 망막에 구멍이 나는 망막 열공이나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망막 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보이는 날파리가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진다거나 눈에 번쩍이는 번갯불이 보이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이 어두워지면 병원에 꼭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 보시길 바란다.

기고

우리 농축산물 생산 기반 유지와 농협의 가치



김석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닭을 ‘못난이 감자’라는 이름으로 30t이나 판매해 준 것이 큰 화제가 됐다. 어려움에 놓인 국산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준 데 고마움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점에서 아쉬움과 씁쓸함의 생각이 함께 교차했다.

농협은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과 동시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정상품, 비정상품 가릴 것 없이 전량 판매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전국의 하나로마트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우박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농산물은 ‘보조계 OO’, 가뭄으로 인해 크기가 작은 농산물은 ‘한 손 OO’, 태풍 피해를 입은 농산물은 ‘OO낙과 농가 돕기’ 등 다양한 소비지 마케팅을 통해 수많은 ‘못난이 감자’를 판매하는 역할을 농협이 해 왔고 ऐसे 이런 노력을 국민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국민은 수출과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를 잘 기억하고 있

을 것이다. 일본이 취한 조치는 우리의 ‘산업 안보’를 위협한 것이다. ‘식량 안보’는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한 번만 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값싼 농축산물을 언제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르면 국산을 대체해 소비하자는 생각은 자유주의 국제무역에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식량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이 논리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는 농축산물의 특성, 전 세계의 농축산물 수출국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사실, 한 번 붕괴된 농업 생산 기반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국산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대형 유통업체나 산지 유통업체가 농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가칭 ‘농축산물 유통 이득 공유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전남농협만 해도 연간 1600억 원을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유통업체도 그 사

회적 위치에 걸맞게 수익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생산자에게 환원해 식량 안보를 함께 유지하는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농협은 올해 한 해 지속적인 우리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사랑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을 찾아 ‘국산 김치 사용 우수 식당’을 인증하고 애용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격지 및 일삼공 운동’을 임직원들이 먼저 시작할 예정이다.

‘공격지 운동’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공짜로 받지 않고, 가격 깎지 말고, 지속적으로 애용하자’는 것이며, ‘일삼공 운동’은 하루에 밥 세 공기는 꼭 먹자는 뜻이다.

국민들도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 거창한 목표 보다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일, 하루에 우리 쌀 밥 세 공기는 꼭 챙겨 먹기,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

社說

‘수사권 독립’ 경찰도 공신력 제고 노력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엇그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면 아니하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검경의 관계도 수직적 주종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

요 범죄와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경찰은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자율권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숙원이었던 수사 독립이 이뤄졌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부실 수사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의 의혹으로부터 변신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엉뚱한 범인으로 몰렸던 ‘이춘재 살인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강화된 권한에 걸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 수사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경찰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CC 개관 5주년 ‘장밋빛 비전’이 통하려면

2020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개관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ACC는 ‘평화’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문화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발표했다. ‘민주·인간·평화’의 광주 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실현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ACC와 아시아문화원이 엇그제 발표한 2020년 사업 계획의 3대 전략은 5·18 40주년을 기념한 차별화된 콘텐츠,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 동반 성장 등이다. 핵심 가치로 내건 평화가 콘텐츠와 사업에 융합돼 문화 생태계가 선순환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체 제작한 공연을 비롯해 지역 음악인과 손잡은 ‘오월음악회’와 아시아컬처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ACC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이란 위상에 걸맞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971만 명이 방문했다. 생산 유발효과 8430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6157억 원 등 파급 효과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실적에도 지역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ACC 효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렇 조 ACC가 내놓은 ‘2019 인지도 조사 결과’ 국민 중 절반가량이 아직도 ACC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C가 세계적인 문화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공식 중인 전당장, 조직의 이원화, 콘텐츠 보완 등 신중한 조치들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사업 중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ACC와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이원화도 손발 필요가 있다. ACC의 개관 5주년 장밋빛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無等鼓

새 출발을 다짐하는 1월이어서인지, 라디오를 듣다 보면 당당한 행진곡풍의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다. 화려한 관악기가 어우러진 이런 곡들은 근사한 한 해를 맞이하라는 응원가처럼 들리기도 한다.

매년 1월1일 오스트리아의 빈 뮤직페라인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다. 지구촌 곳곳으로 중계되는 이 음악회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곡이 있다. ‘왈츠의 황제’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데츠키 장군을 기리는 곡을 의뢰받아 작곡한 것이다.

미국 작곡가 에런 코플런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도 신년에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다. 행진곡풍의 음악이나 팡파르는 영웅이나 장군을 위해 작곡되는 경우가 많다. 한테 이 곡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을 위한 곡이어서 더 관심이 간다. 1942년 작곡된 이 곡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군 병사들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기

획된 프로젝트에서 탄생

했다. 곡 제목을 고민하던 작곡가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헨리 A. 윌리

스가 ‘보통 사람들의 세기’(Century of the Common Man)라는 연설에서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역설한 데 감명을 받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한다.

며칠 후면 설날이다. 올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팡파르를 울려도 좋지 않을까. 타악기, 트럼펫, 호른 등이 어우러진 4분 남짓의 곡은 유튜브 등에서 여러 버전으로 들을 수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보통사람 팡파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앙코르 곡으로 연주되는 ‘라데츠키 행진곡’은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곡이다. 경쾌한 리듬과 박자에 맞춰 관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은 자주 연출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곡의 제목은 오스트리아의 영도였던 북부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라데츠키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요한 슈트라우스가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온 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